

영국 재외선거 투표율 81.75 %

선거인 6248명 중 5108명 참여 ... 전세계 79.5% 기록 역대 최고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재외투표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주영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주영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투표 마감 후 선거인 6,248명 중 5,108명이 참여해 투표율 81.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해 5.9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재외국민 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진다. 인천공항에서 재외투표수(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거관에 보내져 선거 당일인 3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재외투표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역대 영국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18대 (2012년) 78.2%, 19대 (2017년)는 82.3%, 20대 (2022년)에는 75.8%를 기록했다.

한편 전세계 재외투표에서 20만 526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 중 25만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이 가운데 20만5268명

이 투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로는 10.4%, 명부 등재 선거인수로는 79.5%가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졌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편집부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의 날 행사

6월 28일 (토) 킹스톤 페어필드 그라운드서 개최

재향군인회 영국지회 (지회장 최무룡)가 6월 28일 (토) 킹스톤 페어필드 레크레이션 그라운드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주최측은 “연로하신 참전용사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레딩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레딩한국학교 학생들과 한인 300여 명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에게 다채로운 공연과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31면 참조〉편집부



바로잡습니다

본지 5월 15일치 1면 “영국, 이민법 강화 이민자 축소” 제목의 기사 내용중 ‘대학원 수준 (RGF 레벨 6)’이 아니라 ‘학사 수준 (RGF 레벨 6)’ 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지 다음호 발행 6월 26일

주영하 옥스퍼드 사전 속의 K푸드 ㉠ 치맥 » 20	독자투고 KUMA 제10회 ‘건강의 날’ 개최 » 22	아이러브스테이지 ‘패딩턴’ 뮤지컬 웨스트엔드 초연 » 23	최성주 목사 가정 회복의 희망 » 24	이웅진의 결혼 영원한 피비우스의 띠 » 26
------------------------------------	--------------------------------------	--	-----------------------------	--------------------------------

MAJANG DONG
마 장 동
(3면 참조)

GREEN FARM
'푸른농원' 상표를 확인하세요!
떡, 콩나물 전문
☎ 07379 960 460 / 020 8417 1123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ggm 지지엠
♥맛있는... 직접만든 순대, 순대국
☎ 020 8337 7999

★★★★★ KOREAN RESTAURANT
강남
open 월요일 (점심휴무) 17~23
수요일 (점심휴무) 17~23
화요일은 쉽니다 목요일 (점심휴무) 17~23
금요일 12~15 / 17~23
토·일요일 종일영업 12~23

KIB보험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 브로커 Since 1992
레스토랑·의료·상업·사무실·빌딩·차·Liability 보험 등
JEIB Group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등록
www.kib.co.uk
020 7847 8630/1 info@kib.co.uk
3rd Fl, 14 Austin Friars, London EC2N 2HE

워크비자/스폰서쉽 18면 참조
지사설립/주재원비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 079 4450 5952 (왓츠앱)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카톡 ID : johnhsuh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대한보험 차·집·Shop 모든 상업보험 FCA 등록업체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십시오!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C&C Express
국내·해외 이사·Delivery
안틱 & 커머셜 (수출·수입)
07740 283 409
07833 671 027

미각 味覺
MIGAK
KOREAN CUISINE
우스터파크 유일 한국 맛집
☎ 020 8337 7787

Soldeli
Japanese Sushi and Fine Dining at Home
생선 횡감, 초밥을 수산물과 각종육류, 집앞까지 매일 배송. 영국 전역.
£70 이상 무료. 주 6일 배송.
참치, 방어, 연어, 일본 와규, 성게알, 일본술, 전복 등.
soldeli.co.uk

정직하고 성실한
보라여행
항공권 & 여행 전문
☎ 020 8241 7987 / 8949 1279
07804 779 401
www.boratravel.com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A3 MOTORZ
튜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타이어 교환·펑크 / 전기문제
New Malden KT3 3NE
☎ 07540 142 017
기술자 염관식

시나이 모터스
SYNAI MOTORS
도색 전문
보험·수리
MOT 대행
0208 241 0836 / 07880 700 492
167 Surbiton Hill Park Berrylands KT5 8EJ

GARTH COATES SOLICITORS 법무법인 가스코트
스폰서라이센스 / 셀프스폰서쉽 / 사업·취업비자
결혼비자 / 영주권 / 시민권 / 항소 / 행정소송
부동산 취득 및 임대계약 / 이혼 / 양육권 소송
변상미 020 3971 5084
WhatsApp : 07957 248 195 www.garthcoates.com

갈보리장로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London
주일에배안내
·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 예배장소 : 14 Tudor Close, Chessington, KT9 1BL
· 담임목사 : 이강호
· 홈페이지 : www.londoncalvary.com
· ☎ 07766 145 178

미소하우스
민박/하숙, 뉴몰든역 3분 고급 단독 주택
출장 주재 연수 여행, Wifi, 조식 식식 한식
일인 욕실룸 / 넓은 가족룸, 카드결제 가능
카톡 ID : misohouse
0782 333 6807

해외동포들을 위한 대림성모병원 해외종합건강검진



18년간의 해외검진 노하우 | 최고의 의료진 | 최첨단 의료장비 | 부담없는 비용

해외종합검진 혜택

- 1 로알종합검진 및 입원종합검진시 1인실 배정
- 2 세면도구제공
- 3 검사결과지 및 영상 CD제공

당일종합검진

남 98만원 | 여 111만원 (40세 미만) 113만원 (40세 이상)

의사 상담(검사 전후), inbody, 안저검사, 청력검사, 심전도, 구강검사, 위내시경(수면 선택), 헬리코박터균 검사(CLO test), 흉부X-선검사, 골밀도, 저선량흉부CT, 두부CT, 뇌동맥류 위험 평가,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남), 골반초음파(여), 유방촬영(여 40세 이상), 유방초음파(여), 자궁경부세포진(여) 혈액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5종(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여), 전립선암(남)), 갑상선기능, 빈혈, 간염검사(A형/B형/C형), 간기능, 담관검사, 고지혈증, 당뇨, 신장기능, 통풍, 칼슘, 혈액형검사, 전해질검사, 감염 및 성병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질환, 심근질환, 혈액학검사 및 백혈구 백분율, 소변검사 10종

입원종합검진

남 138만원 | 여 151만원 (40세 미만) 153만원 (40세 이상)

당일검진 포함
+ 폐기능, 복부비만CT, 대장내시경, 인유두종바이러스(여)
+ 혈액추가(빈혈정밀, 비타민D)
+ 비타민B & 비타민C(영양제) 주사 제공
+ 1인실 제공

로알종합검진

남 285만원 | 여 298만원 (40세 미만) 300만원 (40세 이상)

입원검진 포함
+ 뇌MRI, 뇌MRA(두부CT 대체), 척추 MRI(경추, 흉추, 요추, 천추)
+ 복부CT, 심장CT(관상동맥/조영제),
+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 혈액추가(심혈관질환)



대림성모병원
DAERIM SAINT MARY'S HOSPITAL
홈페이지:www.drh.co.kr
07442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657

종합검진 상담 및 예약 안내

국제진료센터	대표전화	+82-(0)2-829-9300
	HP	+82-(0)10-4429-5798
	Kakao ID	Daerim8319003
	E-mail	global_healthcare@drh.co.kr
	Fax	+82-(0)2-829-9128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중 하나다. 최근 한류 붐으로 인해서 한국어가 이 사전에 매년 추가로 등재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K푸드 관련 단어가 19개 등재되었다. 이것은 한국문화와 한국음식이 영어권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마침 런던에 체류 중인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문학자인 주영하 교수가 19회에 걸쳐서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의 K푸드〉라는 칼럼을 싣는다.

- 편집자 주 -

Chimaek in Oxford English Dictionary

■정의 : In South Korea and Korean-style restaurants: fried chicken served with beer. Popularized outside South Korea by the Korean television drama My Love from the Star (2014). (한국과 (외국) 한국식 레스토랑에서는 프라이드치킨을 맥주와 함께 제공한다.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2014)를 통해 해외에 널리 알려졌다.)

■용례 ① : For the next game I go to, I will know to have..a package of chimaek at my side,..ready for the fun time that awaits me at Jamsil Baseball Stadium,((다음 경기에는... 치맥 한 팩을 곁에 두고... 잠실 야구장에서 기다리는 즐거운 시간을 준비해서 가려 한다.) Korea (Korean Culture & Information Service) September 4/2, 2012.

■용례 ② : [In response to I found a Korean fried chicken+beer place.] Yesssss!!! Thank you!! It's been a while since I've been able to enjoy some chimaek!([한국 치킨+맥주 맛집을 찾았습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치맥을 즐길 수 있었어요!) @khard123 24 February 2021 in twitter.com



1970년대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판매한 통닭 © 주영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인기를 끈 반반치킨



치맥 © 나무위키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의 K푸드 ⑨ ‘치맥’

옥스퍼드 사전 치맥 정의

한국어 연구기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이란 웹사이트에서는 ‘치맥’을 ‘chicken麥’이라고 영어와 한자로 적고 “명사 ‘치킨’과 ‘맥주’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반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치맥’을 한국의 음식점이나 해외의 한국 레스토랑에서 맥주와 함께 프라이드치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웹사이트에서의 치맥 설명은 상세한 편이다. “치맥은 치킨의 치와 맥주의 맥을 합친 한국어 치맥에서 가져온 단어다. 맥주는 ‘beer’를 뜻하는 한국어고, 치킨은 영어 단어인 chicken서 가져온 한국어다. 그런데 한국어 치킨은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튀긴 닭(fried chicken)’을 뜻한다. 치맥이 영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프라이드치킨과 맥주의 조합이 해외에서 대중화된 것은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My Love From the Star)〉를 통해서다. 한국 최고의 여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이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은 끊임 없이 치맥을 갈망하고 간식으로 먹었다. 결국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었던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식 치킨 열풍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치킨전: 백숙에서 치킨으로 한국을 지배한 닭 이야기》(파비, 2014)의 저자 정은정은 ‘치맥’이란 단어가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보았다. 하지만 ‘치맥’이 하나의 단어로 유행한 시점은 2010년 6월, FIFA 남아공 월드컵 때였다. 한국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까지 ‘치맥’이 대중적인 한국어로 자리 잡은 시기는 앞의 정의에서도 나와 있듯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를 끈 2014년경이다.

“첫눈 오는 날에는 치킨과 맥주데”

〈별에서 온 그대〉는 한국의 SBS-TV에서 2013년 12월 18일에 첫 방영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27일에 종

영한 21부작 드라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지금과 달리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방영에 관해 매우 개방적이었다. 성(省)마다 있는 위성방송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송출한다고 난리였다. 당시 중국의 호텔 방에서 성별(省別) 위성 방송을 켜면 수많은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를 송출하고 있었다.

SBS-TV의 2014년 2월 27일자 뉴스에서는 베이징 특파원 기자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여주인공의 한마디가 중국을 뒤흔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여주인공 전송이가 한 “첫눈 오는 날에는 치킨과 맥주데”다. 기자는 이어서 “베이징의 한 한국식 치킨집에 점심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을 즐기려는 중국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를 본 뒤부터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자주 치맥을 찾게 됐습니다.” 베이징 시민 ‘왕야오신’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한국 ‘치맥’의 핵심은 프라이드치킨이다. 사실 한국의 맥주는 2010년 대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맛이 뛰어나지 못한 라거(lager)였다. 그래서 한국인 대부분은 ‘치맥’이라고 하면 ‘프라이드치킨’을 먼저 떠올린다. 지금부터 한국인이 언제부터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프라이드치킨의 맛에 푹 빠졌는지 알아보자.

미국산 콩에서 나온 한국의 콩기름

19세기 말까지 조선 사람들은 황색 콩인 대두(大豆)로 만드는 콩기름(대두유, 大豆油)의 제조 방법을 알지 못했다. 식민지 시기에서야 콩기름의 존재를 알았다. 당시 한반도에서 필요한 콩기름은 대부분 중국 동북부의 만주에서 들여왔다. 콩기름을 짜내고 남은 대두박(大豆粕, 콩깍묵)은 식물성 단백질이 40% 가까이 남아 있어 최고의 가축 사료로 쓰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38선에 가로막혀 다시는 만주산 콩기름과 대두박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만주로 통하던 길이 막혔지만, 대두는 자유 진영의 맹주였던 미국에서도 생산되고 있었다.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가 원산지인 대두는 1804년 중국을 방문한 양키 클리퍼(Yankee clipper)라는 배에 실려 미국으로 갔다. 이후 1829년 미국 북중부의 농촌에서 처음으로 대두를 수확했으며, 1929년 대두 생산량이 전에 없이 늘어났다. 1940년이 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두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다.

대두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유지(油脂, 동물 또는 식물에서 채취한 기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원료에

〈21면으로 이어짐〉



콩에서 뽑아낸 콩기름 © 위키피디아 Soybean_oil

〈20면에서 이어짐〉

따라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뉘며 식품·의약품·칠감 따위로 각종 공업에서 널리 쓰인다) 업체에서는 1930년대부터 콩기름 제조를 시작했다. 1956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미국에서 남아도는 농산물, 곧 잉여농산물의 품목에 쌀·보리·밀·수수·옥수수 와 함께 버터·치즈·식용유 등을 포함했다. 그중 식용유는 면실유(棉實油, 목화씨기름)와 콩기름 두 종류였다.

1959년 3월 미국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지원하던 한국군의 경비 일부를 더는 부담할 수 없다며 연차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라고 제의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1960~61년 한국군의 군복과 급식 부분 비용인 1,080만 달러를 부담했다. 1961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부는 국내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에 1962년과 1963년도분에 한해 지원을 요청해 일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군에 지원한 품목 가운데 84만 달러어치의 대두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시 지원 삭감이 재개된 1964년에 미국 정부는 지원 품목에서 아예 대두를 제외하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산 대두를 직접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1967년 한국 정부는 미국산 대두 1만 4,850톤을 사기로 했다. 계약 당사자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대형 곡물 기업이었다. 국내 식용유 업체에서는 값이 싼 2등급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환영했다. 특히 1965년 이후 인스턴트 라면이 많이 판매되면서 국수를 튀기는 데 필요한 기름의 수요가 갑자기 늘자 식용유 업체는 미국산 대두로 콩기름 생산량을 늘려갔다.

곡물 유통과 제분 사업, 그리고 쌀겨기름인 미강유 생산 업체를 운영했던 신덕균(申德均, 1909~1999)은 1968년 11월 국제 차관 220만 달러를 포함한 약 20억 원으로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한국 최초로 '대두종합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해 1971년 3월에 완공했다. 이것이 '해표 동방유량'의 출발이다.

콩기름의 국내 생산
=양계 사료+값싼 콩기름

재료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은 눌러서 짜내는 압착법과, 석유에서 얻는 헥산(hexane) 같은 화학 용매를 넣어 원료 속의 지방 성분을 남김없이 짜내는 용매추출법 두 가지가 있다.



한국 한 프랜차이즈 치킨점의 2023년 신제품 고추바사삭치킨 © 주영하

동방유량의 진해공장은 저온에서 헥산을 넣고 연속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콩기름을 생산했다. 특히 용매추출법은 기름을 짜내고 남은 대두박에 남은 단백질이 매우 적게 파괴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1970년대 초 정부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대두박을 동방유량의 진해공장장에서 생산하자 외화를 아낄 수 있다고 반겼다. 양계·양돈·낙농에 필요한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사료 회사는 동방유량의 대두박 생산을 환영했다.

1920년대만 하더라도 조선의 양계업은 산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했다. 주로 가정에서 닭을 키워 달걀을 시장에 가서 파는 수준이었다. 조선총독부는 품질이 좋은 달걀을 생산하는 서양과 일본의 닭 품종을 보급했지만,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1950년대까지 쏙 이어졌다. 1960년대 들어와서도 사람들은 사료값이 비싼 데 비해 달걀 값이 싸서 양계업을 하면 큰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1960년대 후반부터 소고기 위주 육식 소비로 인해 소고기 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이것을 해결할 방안으로 질 좋은 닭고기 생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당시 북미의 양계업자들은 닭고기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브로일러(broiler)라고 불리는 육계(肉鷄)를 키우고 있었다. 브로일러는 부화한 지 8~10주쯤 된 무게 1.5~2.0kg의 닭을 가리킨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양계업자들은 미국산 옥수수, 페루산 어분(魚粉, 생선을 찌거나 말려서 만든 가루), 그리고 단백질 강화를 위한 대두박 등을 섞어서 만든 배합사료를 썼다.

다 자란 브로일러는 주로 통닭구이용으로 소비된다. 1969년 소고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육류 파동이 일어나자 대체재로 브로일러 소비가 늘어났다. 마침 콩기름을 비롯하여 식용유 생산이 늘어나 브로일러 닭을 통째로 기름에 튀긴 통닭을 판매하는 곳이 생겨났다. 일명 '통닭집'이 시장 안, 닭이나 오리를 판매하는 가축전 근처 곳곳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고온의 기름에 튀긴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겼다.

통닭에서 프라이드치킨 시대 시작

당시의 통닭은 국내에 주둔한 미군들이 즐겨 먹던 프라이드치킨을 모방한 음식이다. 프라이드치킨은 1730년대 미국의 남부에서 흑인 노예들이 날



2019년 관객수 1,600만명을 돌파한 영화 《극한직업》으로 유명해진 수원 영통시장 치킨© 주영하

개 살을 바삭하게 튀겨 먹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백인 농장주가 내다 버린 닭 날개나 발, 목 등을 흑인 노예들이 먹기 쉽게 튀겨서 먹게 되었다.

미국의 프라이드치킨을 모방하여 탄생한 통닭은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지만 실제로 그리 좋은 음식이라 할 수는 없었다. 특히 식용유 가격이 싼 편이 아니어서 통닭집에서는 2~3일 동안 같은 기름을 계속 썼다. 당시 사람들은 산패된 기름으로 튀긴 통닭을 먹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미 야유회나 가족 모임, 소풍이나 휴가를 갈 때 통닭을 싸가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여겨졌다. 1973년부터 미국 정부는 자국의 옥수수기름, 해바라기기름, 콩기름을 한국 수출 상품으로 내세웠다. 국내 식용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했다. 냉전의 경계선에 있던 한국 사회는 미국산 식용유 수입과 함께 미국식 통닭을 한국 음식으로 진화시켜 나갔다.

1977년 신세계백화점 식품부에서 시작한 림스치킨은 당시 가장 유명한 한국의 치킨체인점이었다. 《매일경제》1988년 2월 15일자에서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7평의 림스치킨의 체인점을 예로 들어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초기 투자비는 2천만 원에서 2천3백만 원 정도가 든다. 하루에 40마리의 치킨을 파는데, 재료비·월세·관리비 따위를 빼면 월수입은 두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200만 원 정도다. 당시 대졸 초임이 40~50만 원 정도였으니, 꽤 괜찮은 업종이었다.

1981년이 되면 치킨집이 대도시에서 새로 건축된 아파트단지의 상가에 속속 들어섰다. 1983년 서울에 첫 점포를 연 켄터키프라이드치킨(KFC)은 당시 한국인의 정서에 맞추어 맥주를 판매하지도 배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치킨집 중 일부가 배달에 뛰어들었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부모가 직장에 나가고 아파트에 아이들만 남아 있을 때 치킨 배달은 모두를 만족하게 해준 서비스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치킨집에서는 생맥주를 곁들여 팔았다. 치킨집은 가족 외식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1997년 한국 사회에 들이닥친 외환위기는 대기업과 은행의 파산으로 수많은 고액연봉 실업자를 만들어냈다. 자본력을 갖춘 이들 실업자 중 많



한국 치킨 맛의 핵심은 '겉바속촉'이다. © 주영하

은 사람이 프랜차이즈 치킨업의 가맹점 점주로 변신했다. 장기간의 요리 경험이 없어도 직접 치킨을 만들고 생맥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프랜차이즈 치킨업은 사무직 실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아파트단지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업지역에는 치맥을 판매하는 치킨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씩 생겼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프라이드치킨뿐만 아니라, 양념치킨, 간장치킨, 매운치킨, 파닭치킨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극렬한 경쟁 상황을 헤쳐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치킨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의 자리에 올

랐다. 한국의 프라이드치킨에 쓰이는 닭은 약 30~45일 정도 자란 1kg 정도 자란 뒤 도축되어 유통된다. 그래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의 치킨 맛을 낼 수 있다. 이것은 해외에서 2kg 내외의 닭이 주로 소비되는 양상과 다르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프라이드치킨은 한국 소비자의 열정적인 사랑과 그에 응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치맥이 K푸드의 으뜸 주자가 될 수 있었던 힘은 K팝·K드라마·K영화의 인기 덕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Netflix의 〈치킨 랩소디(Korean Fried Chicken Rhapsody)〉를 감상하기를 권한다.

글: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음식을 문화와 역사학, 사회과학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음식인문학자(문화인류학박사)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다. 2024년 9월부터 1년간 SOAS 한국학센터 방문학자로 런던에 체류 중이다.

저서:

《음식 인문학: 음식으로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2011), 《식탁 위의 한국사: 메뉴로 본 20세기 한국 음식문화사》(2013, 베트남·일본·태국에서 번역출판),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2018, 타이완에서 번역출판), 《조선의 미식가들》(2019), 《백년식사: 대한제국 서양식 만찬부터 K-푸드까지》(2020), 《음식을 공부합니다》(2021), 《그림으로 맛보는 조선음식사》(2022, 중국에서 번역출판),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일제강점기 북한 음식》(2023), 《글로벌푸드 한국사》(2023), 《국수: 사람의 이동이 만들어 낸 오딧세이》(2025) 등의 책을 썼다.

재영한인의사협회(KUMA) - 제10회 ‘건강의 날’ 개최

재영한인의사협회(KUMA)가 지난 10일 (토) 뉴몰든 ‘New Malden Methodist Church’에서 제10회 ‘건강의 날(Health Awareness Day)’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영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KUMA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의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 접근성과 건강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다채로운 강연과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환자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민감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립선 비대증 ▲폐경기 증상 ▲치매 등에 대한 전문 강연이 진행됐다. 더불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구조와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도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순서로는 재영한인간호사협회(KUNA)가 준비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흔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 후에는 다양한 체험형 건강 부스가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간단한 건강 검진, 처방전 상

당, 통증 상담, 질의응답 세션 등이 마련되어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KUNA와 더불어 재영한인약학인협회(KUPharm), 재영한인대생연합(KUMAS) 등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했다. 특히 KUMAS는 의대 진학 상담을 진행하며 젊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더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건강의 날’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타국

생활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한인사회가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바탕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재영한인의사협회는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협회로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바이다.

기사 및 사진 제공 : 재영한인의사협회(KUMA)



KISES TogeTix LONDON

은하계 최저가 신규 플랫폼

런던 뮤지컬 티켓, 혼자 예약해도 단체 할인!
세계 최초 신호등 시스템으로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라!

1. 보고싶은 공연을 선택한다

2. 날짜를 선택한다

3. 결제 후 좌석을 확정한다

세계 최초 신호등을 보고 할인 가능 여부 체크!

- 당일 유효 좌석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일행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합니다.
- 초 단위 예약 로그를 기준으로 선착순 배정합니다.
- 유효좌석이 없어 극장측에서 취소할 경우 환불됩니다. 안심하고 예약하세요.

- 아직 그룹 인원이 부족해요, 다른 날짜를 확인해보세요.
- 곧 단체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 단체 예약이 확정됐어요! 최대 45% 할인이 적용돼요.

지금 바로 예약하기!

www.togetix.com

김준영의 I Love Stage 아이 러브 스테이지

런던 웨스트엔드가 또 하나의 세계 초연을 예고했다. 영국 아동문학의 아이콘이자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온 곰 캐릭터 ‘패딩턴(Paddington)’이 오는 11월 런던 웨스트엔드 사보이 극장(Savoy Theatre)에서 뮤지컬로 새롭게 태어난다. 마이클 본드(Michael Bond)의 원작 동화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이번 작품은 단순한 아동극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유산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이는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뮤지컬 ‘패딩턴’은 밴드 맥플라이(McFly)의 프론트맨이자 작곡가인 톰 플레처(Tom Fletcher)가 음악과 가사를 맡았으며, 각본은 제시카 스웨일(Jessica Swale), 연출은 ‘앤 앤 줄리엣(& Juliet)’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루크 셰퍼드(Luke Sheppard)가 맡는다. 세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조합이지만, 여기에 영국 최고의 제작자 소냐 프리드먼(Sonia Friedman)이 STUDIOCANAL, 유니버설 뮤직 소속 엘리자 럼리(Eliza

‘패딩턴’ 뮤지컬, 올가을 웨스트엔드에서 세계 초연



© ILOVESTAGE IMAGE LIBRARY

Lumley)와 손을 잡고 공동 제작에 나서면서, 이번 초연은 명실공히 2025년 가을 웨스트엔드 최대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플레처는 “이 특별한 곰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새롭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말 그대로 꿈만 같다”며 “제시카, 루크, 그리고 최고의 프로듀서들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다. 패딩턴은 이 나라의 심장 그

자체이며, 우리는 모두 그 이야기를 다룬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곧 세비 극장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시카 스웨일 또한 “패딩턴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닌, 희망과 친절, 포용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토록 상징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무대에 올리는 것은 필연처럼

느껴진다”며, “툼의 곡은 놀랍도록 감동적이고, 루크는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연출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전했다.

루크 셰퍼드는 이번 작품을 “전혀 새로운 스토리와 심금을 울리는 대본을 갖춘,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패딩턴”이라 표현하며, “다양한 캐릭터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 숨 쉬는 순간은, 라이브 공연만이 줄 수 있는 마법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꿈같은 프로젝트를 세비 극장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관객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제작자 소냐 프리드먼과 엘리자 럼리는 “패딩턴에게 새로운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특별한 곰이 상징하는 따뜻함, 친절, 품격은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들이며, 이 아름다운 세계를 관객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특권”이라고 전했다.



‘패딩턴’은 단지 아동극이나 동화의 재해석을 넘어, 오늘날 공연 예술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낸다. 관객은 패딩턴을 통해 단순한 향수 이상의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웨스트엔드가 가을의 정취와 함께 품게 될 푸른 코트의 곰은, 영국 연극계가 세대와 장르를 넘어 관객과 공감하려는 가장 따뜻한 방식일지 모른다.

해밀턴 이후 10년, 브로드웨이엔 더 이상 ‘메가 히트’가 없다

제프리 셀러, 침체된 창작 생태계에 경고장

브로드웨이의 대표 프로듀서이자 ‘해밀턴(Hamilton)’의 제작자 제프리 셀러(Jeffrey Seller)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2015년 ‘해밀턴’ 이후 브로드웨이에는 또 다른 메가 히트작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회고가 아닌, 현재 브로드웨이 산업 전반의 위기감을 드러내는 경고로 읽힌다. 셀러는 이번 달 출간한 회고록 『Theater Kid』를 통해 자신의 수십 년간의 프로듀서 경력을 정리하면서, 브로드웨이의 창작 환경이 점점 더 상업성과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브로드웨이에 10편이 넘는 새로운 뮤지컬이 등장했고,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운 관객 수 회복세를 보이는 점은 분명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수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해밀턴’ 이후 이렇다 할 메가 히트작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메가 히트작의 부재는 단순한



해밀턴의 제작자 제프리 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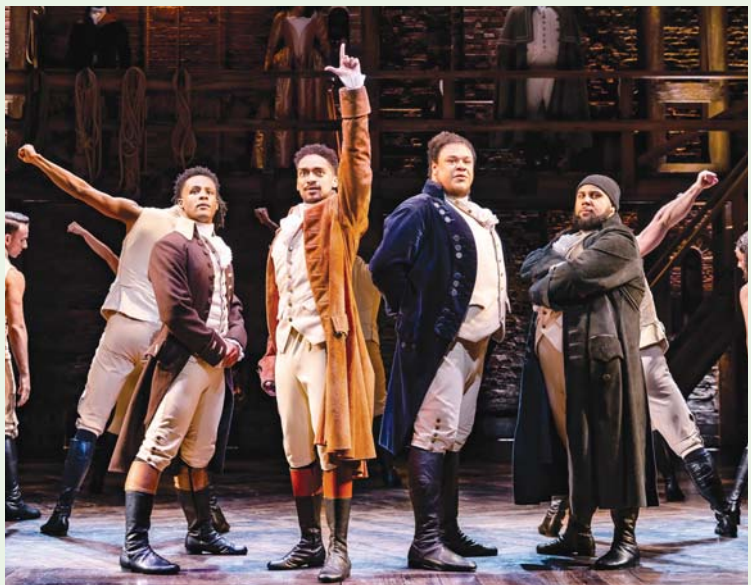
흥행 결과를 넘어서, 창작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2023-24 시즌 브로드웨이의 총 관객 수는 약 1,229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8-19 시즌의 1,477만 명에 비해 약 17% 감소한 수치다. 이와 같은 수치는 극장 문이 다시 열렸다는 사실 이상의 맥락을 요구한다. 브로드웨이는 지금, ‘많은 작품이 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지갑을 여는 결정적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셀러의 가장 큰 우려는 바로 투자 자본의 지속 가능성이다. “언제쯤 투자금이 말라버릴지 걱정된다”는 그의 말은, 브로드웨이가 고위험 저수익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지난해 영국의 세계적인 여성 프로듀서 소냐 프리드먼(Sonia Friedman)이 <더 스테이지(The Stage)>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브로드웨이는 창작도 어렵고, 상업적으로 성공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한 바 있다. 셀러의 언급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창작물에 대한 신뢰와 투자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셀러는 최근 ‘해밀턴’의 미국 투어 공연을 케네디 센터에서 철수 시키기로 한 배경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기관에 개입하면서 공연 예술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쇼 수익을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예술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도구화되는 것을 명확히 거부한 것으로, 셀러의 예술관과 책임감 있는 프로듀서로서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셀러의 발언은 단순한 ‘노장의 회고’가 아니다. 그것은 브로드웨이 창작 생태계의 미래를 진단하고, 다시 한 번 그 안에 ‘해밀턴’과 같은 혁신적이고 시대를 움직일 작품이 등장하기 위한 조건을 되묻는 질문이다. 지금의 브로드웨이는 단지 공연을 제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변곡점을 준비하고 있는가? 셀러의 질문은 브로드웨이 뿐 아니라 세계 공연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Jordan Benjamin, Alex Sawyer, Lemuel Knights and Jordan Castle © Danny Kaan



2025년 토니상 4개 부문 후보작 뮤지컬 오퍼레이션 민스미트

영국 창작 뮤지컬 ‘오퍼레이션 민스미트’

토니상 4개 부문 후보작, 2026년 글로벌 투어 돌입

반면 영국 창작 뮤지컬의 기세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토니상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도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뮤지컬 ‘오퍼레이션 민스미트(Operation Mincemeat)’가 내년부터 글로벌 투어에 돌입한다.

제작사 스플릿립(SplitLip)은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2026년을 기점으로 호주,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ILOVESTAGE에서 협의중이다.

세계 투어는 영국 맨체스터의 로우리 극장(The Lowry)에서 시작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투어가 아니라, 이 작품의 탄생과 밀접한 상징적 행보다. ‘오퍼레이션 민스미트’의 작가진이 2017년 이 극장에서 초연 개념의 스크래치 공연을 올린 것을 계기로, 로우는 ‘민스미트’의 실질적인 모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우리를 처음 믿고 무대에 세워준 극장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투어의 첫 행선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공연은 로우리 개막 이후 약 40주간 영국 전역을 순회할 예정이며, 세부 투어 일정과 캐스팅은 추후 발표

된다.

현재 브로드웨이의 골든 시어터(Golden Theatre)에서 공연 중인 이 작품은 이미 세 번째 연장 공연에 들어 있으며, 웨스트엔드에서는 무려 15번째 시즌을 이어가고 있다.

제작사 스플릿립은 “‘오퍼레이션 민스미트’가 뉴욕에 진출하며 문자 그대로 세계의 문이 열렸다”고 밝히며, “이 작품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동맹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작품이다. 우리가 투어를 통해 향하게 될 나라들과 그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느낀다”고 전했다.

단순한 장르 풍자나 코미디를 넘어, ‘오퍼레이션 민스미트’는 실화 기반의 스파이 서사를 통해 전시 전략, 국가 연대, 그리고 예술이 전달하는 시대의 메시지까지 품고 있다. 현재 이 작품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상시 공연되고 있다. 이번 글로벌 투어가 단지 영국 창작 뮤지컬의 수출 성공을 넘어, 동시대 공연예술이 전 세계에 던지는 의미 있는 물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ILOVESTAGE 김준영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가정 회복의 희망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은 꿈을 안고 있습니다. 평화로움이 가득한 곳, 웃음과 감사가 충만한 곳, 화합과 배려가 있는 곳,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들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로부터 '위싱턴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평가받은 바 있는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t)은 <공격받고 있는 가정>이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바른 문화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겁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 어디를 보나 가정 문제투성이입니다. 결혼생활이나 자녀들 문제, 약물이나 성(性) 문제, 가족들의 이런저런 문제로 행복한 가정이 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이십삼 년 사이에 가정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고, 자녀들을 적게 두는 커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덩크족(DINKS: Double Income No Kids)입니다. 비극입니다. 또한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든 불안과 충격을 안고 있는 경제가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 회사의 고용주가 지나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여성들 대부분이 일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쓸 여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일하는 가정들은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 두 사람의 수입이 필요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돈을 버는 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00명당

15세 미만이 12.2명, 65세 이상의 성인 15.7명이 살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15세 미만이 9.6명, 65세 이상 성인이 25명, 2060년이 되면 15세 미만이 8명, 65세 이상 성인이 43.9명이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성인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이런 압박이나 불확실성, 긴장과 걱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스트레스는 세 종류입니다. 사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각 가정을 침범하는 개인의 스트레스,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그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정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만일 사회가 이혼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다면, 많은 가족과, 자녀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나 미디어가 사회와 가정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들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둔해지고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심신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 가정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불륜(不倫)과 심대들의 임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현대인은 형편없는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현상을 멈추게 할 능력과 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행동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외면당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굶주림'은 더욱 갈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으며 또 가정에 대해서도 비슷



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 가운데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잘못된 것'은 거의 다 '올바른 것'을 오용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의 경우, 먹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Overeating) 명확하게 '죄'라고 단정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과도한 식탐, 즉 절제 없이 탐욕스럽게 먹는 행위는 여러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하며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형태의 탐욕을 경계하며, 물질적인 욕망에 매몰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기 통제력 부족(Lack of Self-Control)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성(性)도 바르게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도 즐거운 것이 되지만, 오용될 때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생각과 행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근본'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힘으로서 힘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신뢰함으로서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가정과 사회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절제와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사회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기초요, 사회나 국가의 화목을 초래하는 원리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오직 힘의 지배만이 남아, 무엇을 하든 밟고 밟히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건설하는 것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는 사랑이 동기가 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무로 할 뿐이지, 아버지의 행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 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외형적이며, 가식적이며, 거짓된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은 바른 삶의 기초이며, 모든 사람의 대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입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서로 닮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말입니다. 윌리엄 팬은 아내인 동시에 친구일 수도 있는 여자가 참된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가족은 사회에서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입니다. 그 다음의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정의 기쁨, 가정의 웃음, 어린이를 보는 부모의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가족들의 더할 나위 없는 귀염둥이였던 사람은 성공자의 기분을 평생 가지고 살며,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를 자주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였습니다. 1인 가족, 1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공을 지향하는 고독한 사회는 진정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 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잠언 17:1).



최성주 목사
런던안디옥교회 담임

www.kib.co.uk

JIEB Group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등록

Korean Insurance Brokers KIB보험

믿을수 있는 보험 전문 브로커

- ✓ 자동차보험
- ✓ 집/가재보험
- ✓ 각종 상업 보험
- ✓ 의료 보험

Since 1992

☎ 020 7847 8630 / 8631 www.kib.co.uk

e-mail : info@kib.co.uk

3rd Floor, 14 Austin Friars, London, EC2N 2HE

런던한국학교를 후원해 주세요

대한민국 교육부에 등록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런던한국학교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멋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런던한국학교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실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	계좌	웹사이트
- 정기 후원 : 매월 정기 후원 (월정액 Standing Order) - 일시 후원 : 계좌 송금	KEB Hana Bank Account No.: 10001045 Sort Code: 30-14-73 London Korean School Ltd	

런던한국학교
LONDON KOREAN SCHOOL



재영한인교회연합회

KCA in the UK

한빛교회
Hanbeel Church

바른 신학 · 바른 교회 · 바른 생활

주일예배
1부: 10:00am (한빛센터)
2부: 2:00pm (본당)
유치부: 2:00pm (본당)
유초등부: 2:00pm (본당)
중고등부: 2:00pm (한빛센터)
청년부: 4:30pm (한빛센터)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8:00pm (한빛센터)
새벽예배: 5:30am (한빛센터)
수요토들그룹: 10:00am (한빛센터)

담임목사: 김동운 목사
홈페이지: www.hanbeet.org / 전화: 0208 546 3600
한빛센터: 122 London Rd, Kingston, KT2 6QJ
본당: 한빛교회/Kingston Methodist Church, 13 Fairfield St, KT1 2UJ

아름다운교회
ST. JOHN'S CHURCH Spencer Hill, Wimbledon SW19 4NZ

주일예배: 오후 2시
새벽예배: 6:00 am (월~금)
새벽예배는 줌으로
ID: 840 7687 8395
PW: 024086
www.bkclondon.com
담임: 백장현 목사
bkclondon@gmail.com
07748 500 038

런던 센트럴 순복음교회
LONDON CENTRAL CHURCH

교회 4대 목표: 십자가 복음과 사랑 ·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 · 초대 교회의 회복

예배장소
The Borough Welsh Congregational Chapel
90 Southwark Bridge Rd., London, SW1 0EX

예배시간
주일 오후 2시

담임목사: 이상보
문 의: 07449 767905
홈페이지: www.londoncentralchurch.org

세상의 빛
Jesus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말씀과 기도의 집
The WCRD and Prayer house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담 임 : 김 호 근 목사

주소: 77 Heath Road, Weybridge, Surrey KT13 8TN
E-mail: wphlondon@hotmail.com
문의: 장순영 선교사 07917-726-839

웬블던 꿈이있는교회
WIMBLEDON CHURCH OF GODS VISION

주일 오전 10시 30분
The Priory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 Queen's Rd, London SW19 8LX
·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이영주
godsvisionchurch.org
07949947800
mokjada
info@godsvisionchurch.org

센트럴 꿈이있는교회
CENTRAL CHURCH OF GODS VISION

주일 오후 2시
Welsh Baptist Church, 30 Eastcastle Street, London, W1W 8DJ
·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이영주
godsvisionchurch.org
07949947800
mokjada
info@godsvisionchurch.org

런던 주찬양교회
Praise The Lord Church of London

1. 예배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2.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3. 성령과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4. 전도, 헌신, 봉사로 하나되는 교회

■ 주일 예배: 오후 2시 ■ 담임 목사: 김주경
■ 문의: 07528 295 356 / ukjkim11@gmail.com
160 Green Lane, Morden, Surrey SM4 6SR

옥스포드 선교교회
Oxford Mission Church

주일예배: 10:30am
장소: Wycliffe Hall Chapel
주중예배: 수, 금 7:30pm
새벽예배: 매일 6am

담임목사: 천계상
oxfordmissionchurch@gmail.com
www.oxfordmissionchurch.wixsite.com/home

런던 벨엘교회
BETHEL CHURCH OF LONDON

주일예배: 11AM
새벽예배 (월~금): 6AM
수요일예배: 8PM
저녁예배 (월, 화, 목): 8PM
문의: 07584 027756 이승복 담임목사
Unit 1, 167A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런던 새중앙교회
The Love Of Jesus

주 일 예 배: 오후 2시
새벽기도: 오전 6시
화요성경공부: 오후 1시
이 메 일: lncc@naver.com
전 화: 07790553317
예 배 장 소: St. John's Church,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3RX
담 임 목 사: 황형식

런던 영광교회
REVBKAHN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새소식반: 금요일 오후 3:30~6:00
Mothers & Toddlers: 수요일 10:30~12:00

연락처: 안병기 목사/ 김경순 사모
revbkahn@gmail.com / mksahn@gmail.com
07990 760354 / 07747 325242

On a rainy day Jesus will be your umbrella!
글로리아 센터

교회
정소년: 10시 청년 5시 (High St, New Malden, KT3 3PY)
장년 & 주일학교: 1시 (39 Ewell Road, Surbiton, KT6 6AF)
Gloria Church
조성영 목사 07914069732

런던 [시내, 센트럴] 예수비전교회
LONDON JESUS VISION

예배: 주일 오후 1:30 / 수요일 오후 8시
장소: Paget Christian Centre 18 Randell's Rd, London N1 0DH
지하철: St. Pancras Int. (유로스타), Kings Cross역 도보 7분 교회 주변 무료 주차 가능

담임목사: 이희영
카톡 ID: revheui
<http://ljvc.org>
020 8346 2070 / 07828 267762

케임브리지 열림교회
Cambridge Yeolim Church

■ 예배장소
Castle Street Methodist Church, Castle Street, Cambridge CB3 0AH (주차장은 2 St Peter's Street, CB3 0AH)
■ 예배시간: 주일 오후 2시
■ 담임목사: 김태규
■ 문의: 01223 573275 07837 840294
www.cambridge.onmam.com

웬블던 한인교회
WIMBLEDON KOREAN BAPTIST CHURCH

■ 예배장소: Wimbledon Baptist Church 129 The Broadway Wimbledon SW19 1QJ
■ 예배시간: 새벽기도 online → 오전 6시(화~금) 금요일기도회 → 오전 10시 (격주) 주일예배 → 오후 2시
■ 문의: 권종현 목사 enochwith@yahoo.com

런던 순복음교회
LONDON FULL GOSPEL CHURCH

"예배가 살아있는 행복한 교회"

· 주일예배 (한국어 / 주일학교 / 인터네셔널)
1부: 오전 8:30 | 2부: 오전 10:30 | 3부: 오후 1:30
유아, 유초, 중고: 오전 11시 | 인터네셔널: 오전 9시
· 주중예배 (수요 / 금요 / 새벽)
수요: 저녁 7:30 | 금요: 저녁 8시 | 새벽: 월-금 오전 6시
· 담임목사 김용복

www.lfcg.co.uk | 0208 944 6781
lfgcuk0691@gmail.com | 0208 944 6781
37 West Barnes Lane, Raynes Park, SW20 0BL

리버풀 한인교회
LIVERPOOL KOREAN CHURCH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 주일예배: 오후 1시
■ 담임목사: 지성구
■ 카톡 ID: ukm0691
■ 예배장소: St Philemon's Church 78 Admiral St, Toxteth, Liverpool L8 8BR
■ 인스타: @liverpoolkoreanchurchuk
■ 홈페이지: liverpoolkoreanchurch.org

런던 새로운교회
LONDON NEW CHURCH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시 30분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30분
■ 수요성경공부 (ZOOM): 저녁 7시 30분
■ 담임목사: 권순진
■ 전화: 07795 467248
■ 홈페이지: www.gp21.org
Emmanuel Church, Dudley Drive, Morden, SM4 4RJ

Waterloo 런던은혜교회
LONDON GRACE CHAPEL

주 일 예 배 : 2 시
English Bible Talk
- 2세대 자녀들을 위한 영어설교
청년부: 예배 후

바른 신학 · 건강한 교회 · 행복한 생활
Living Space 1 Coral St., Waterloo, London SE1 7BE
담임목사: 김성훈
07859920609
withkimsh@gmail.com

영원한 뫼비우스의 띠

A는 B에게 B는 C에게 C는 D에 끌리는 이상형

‘뫼비우스의 띠’라는 게 있습니다. 길쭉한 종이를 한번 꼬아서 양끝을 연결하면 앞뒷면도, 좌우도 구별할 수 없고, 계속 이어지는 뫼비우스의 띠가 되지요.

남녀관계야말로 뫼비우스의 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는 B를 좋아하고, B는 C를 좋아하고, C는 D를 좋아하고, D는 A를 좋아하는, 이렇게 이성과의 만남은 서로 어긋나고, 딱 맞아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A는 B를 좋아하고, B는 A를 좋아하면 둘 다 행복할텐데, 왜 B는 A가 아니라 C를 좋아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이상형 때문입니다.

34년 간 중매사업을 하면서 오랜 세월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해온 것이 바로 이상형입니다. 4만7천쌍 넘는 사람들의 연애와 결혼과정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이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이상형은 실제 결혼생활에서 서로 잘 맞는 배우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후반의 성공한 해외 교민 남성을 중매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프라이드가 강하고, 눈이 높아서 10명의 여성을 소개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여성들이는데, 그 남성은 어찌나 작은 단점을 잘 찾아내는지, 나중에는 “당신은 단점 하나 없는 사람인가?” 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3명의 여성을 추천했는데, 먼저 소개한 여성들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성은 3명 중 한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분을 한번 만나고 싶는데요~”

“여성 쪽 의사를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거절했습니다.

“좋은 분이라는 건 아는데요.. 나이가 9살이나 많아서...”

“그럼 제가 추천한 분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나요?”

“네.. 하버드 대학 나오신 그분이래면...”

그런데 하버드대 출신의 그 남성은 이 여성이 아니라 시애틀에 있는 교포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시애틀의 여성은 프랑스 교포 남성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요. 프랑스 교포 남성은 시애틀의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뫼비우스의 띠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싫은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어떻게 만나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한두 가지 면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일단 만남을 가져보면 서로 호감을 가질텐데, 한 가지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상형을 아직 못났다고 생각하지, 이상형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형을 만나 결혼하더라도 안맞는 부분이 생기는데, 살아보지 않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전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웅진 Couple.net-선우 결혼정보대표

Couple.net

이웅진의
결혼

07441-441209



선우
결혼정보대표
이웅진

온난화 1.5℃로 억제해도 해수면 급상승

국제연구팀, 빙상손실·해수면 급상승 막으려면 상승 폭 1℃ 내외로 막아야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해도 극지방 빙상 손실과 해수면 급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더럼대 크리스 스토크스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1일 과학 저널 커뮤니케이션스 지구 &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서 온난화로 인한 과거·현재·미래의 빙상 손실과 해수면 상승을 분석,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구 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손실이 빨라져 수 세기에 걸쳐 해수면이 수 미터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피하려면 온난화 억제 목표가 1.5℃보다 1℃에 가까워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크스 교수는 “1.5℃는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에 너무 높은 온도라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해수면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빙상 손실 속도는 현재 기후 조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1.5℃ 상승이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방대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향후 변화를 예측했다.

과거 온난화 시기 증거들을 분석하고, 현재 빙상이 얼마나 손실되고 있는지를 측정한 자료와 앞으로 수 세기 동안 다양한 온도 상승 수준에서 얼마나 많은 얼음이 사라질지 예측한 모델을 결합했다.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에는 전 세계 해수면을 약 65m 상승시킬 수 있는 얼음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온난화 시기 분석 결과, 기온 상승이 크

고 지속 기간이 길수록 해수면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빙상에서 손실되는 얼음량은 1990년 이후 4배 증가했고, 산업화 이전 대비 1.2℃ 상승한 기온 수준에서 연간 3천700억t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

지구 기온이 1.5℃ 상승하면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이 따뜻해진 대기와 해양 온도에 반응해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해수면 상승 폭은 수십 년~수 세기에 걸쳐 수 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은 해안 및 섬 주민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고 수억 명의 이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과 각국 정부가 1.5℃ 상승이 극지 빙상과 해수면에 미칠 영향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면에서 1m 이내에 사는 세계 2억3천만명이 실존적 위협을 받는 상황을 피하려면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 또는 그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크스 교수는 “1990년대 초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1℃ 높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ppm 정도였는데 현재는 424ppm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지구에 안전한 온도 상승 한계치는 1℃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요점은 1.5℃ 상승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게 아니라 기온 상승을 빨리 멈출수록 향후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쉬워진다는 의미”라며 “해수면 급상승을 피할 ‘안전한’ 온도 목표를 정밀하게 결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강국’ 에스토니아, 교실서 스마트폰 금지 안해

적극적인 ‘디지털 포용’으로 OECD 학업성취도평가 유럽 1위

전 세계 각국이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내보내기 위해 머리를 싸매던 동안, 정반대의 길을 택해 ‘교육 강국’으로 거듭난 국가가 있다.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자리한 인구 140만명의 소국 에스토니아가 그 주인공이다.

26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최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 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구소련 국가인 북유럽 소국 에스토니아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이웃 나라인 핀란드를 제치고 여러 분야에서 1위에 오르며 교육 강국으로 떠올랐다.

가장 최근 진행된 2022년 PISA에서 에스토니아는 수학과 과학, 창의적 사고 분야에서 유럽 1위를 기록했으며, 독해 분야에서는 아일랜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인구와 예산이 훨씬 많은 다른 선진국들을 제치고 이런 성과의 배경으로는 에스토니아 교육 당국이 수십년 간 펼쳐 온 적극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이 꼽힌다.

특히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에스토니아는 스마트폰을 학습 도구로 쓸 것을 적극 장려한다.

에스토니아 교육 당국은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며, 12~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만 스마트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쉬는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수업 중에는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과제나 활동을 수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크리스티나 칼라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장관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



크리스티나 칼라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장관

럼에 참석해 설명했다.

칼라스 장관은 이러한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해 아직까지 어떠한 문제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에스토니아 사회는 디지털 도구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훨씬 더 열려있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는 스마트폰의 등장 이전부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어 왔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1997년에는 ‘타이거 리프’(Tiger Leap)라는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의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대규모로 투자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도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됐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에스토니아는 최근의 인공지능(AI) 열풍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숙제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에스토니아 당국은 학생들의 AI 학습을 오히려 장려하며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 당국은 오는 9월 16~17세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학생 5만 8천명과 교사 5천여명에게 AI 도구 접근권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스토니아 당국자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AI 활용 기술과 디지털 윤리, AI 문해력 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AI 정책을 통해 에스토니아가 “AI를 활용하는 가장 똑똑한 국가 중 하나”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6. 요검사 | 7. 체지방검사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62만원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광동병원[양방&한방](봉은사역) |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한국문의 : +82 (0)70 4141 4040
 카카오톡 : 010 3469 4040 (kakao 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BRITISH KOREAN WAR VETERANS REMEMBRANCE DAY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의 날

Fairfield Recreation Ground
Fairfield Road, Kingston upon Thames
KT1 2PY

Saturday, June 28, 2025
11 a.m. to 3 p.m.

Honouring All Who Served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영국지회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UK / www.korvauk.org

미소 하우스 (하숙, 민박)

뉴몰든역 3분, 런던 시내 접근 편리, 조용한 주택가
일인 욕실룸~넓은 가족룸 포함 다양한 룸 완비
정성스럽고 맛있는 아침, 저녁 한식, 카드결제 가능
출장, 주재, 연수, 여행, 집 구하기 전·귀임 전 잠시
카톡 문의 : **misohouse** ☎ 0782 333 6807

조은 하숙 (구 이모네)

뉴몰든역 도보 2분 거리. 런던 시내 접근 매우 편리
아침 저녁 최고 맛있는 한식 제공
1인실부터 가족룸까지 다양한 룸 완비
장·단기 출장 / 연수 / 가족 여행 환영
☎ 07817 921 280 | 카톡 : leedh022769

런던건축

고객맞춤형가격/영국표준품질/철저한 사후관리
▪ Fully Insured(10 Million)
▪ 하우스/레스토랑/사무실 ▪ 신축/증축/변경 ▪ 설계/디자인/카운실 허가
▪ 증명서 발급/설치/수리(가스/보일러/전기/언더히팅/에어콘)
▪ 인테리어/리퍼비쉬
Mobile. 07515 738 777 dyk8855@gmail.com

MB LAW Solicitors

형사 / 민사 / 이혼 / 재산분할 / 고용법 / 명예훼손 /
비자 / 기타 전반적인 법률 상담 / 10명 이상의 각 분야
전문 변호사 / 철저한 비밀보장 / 27년의 노하우
단 하나의 해결방법도 놓치지 않습니다.
김종현 변호사 (Accredited Police Station Rep)
☎ 07424 824 666 (WhatsApp 가능)

편안하고 아늑한 정 하우스

출장, 주재, 가족 여행, 집 구하기 전 임시거주 등
어떤 목적에도 적당한 게스트 하우스.
아늑한 리셉션, 초고속 인터넷, 세탁 서비스,
깔끔하고 맛깔스런 아침 저녁 제공, 카드결제 가능.
뉴몰든 역 10분, 집앞 버스 213, K1. 구 올리브 하우스.
☎ 07908 522 109 카톡 ID : junhouse5

SOUL

estate agents
BRITISH
PROPERTY
AWARDS
2019-2025
★★★★★
GOLD WINNER
LETTING AGENT
IN NEW MALDEN
서울부동산 | 020 8949 4989
158 High Street, New Malden, KT3 4ES

Cambridge Maths Academy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 전공 선생님의 온라인 줌 수업
A-level Maths, Further maths, Foundation maths
자세한 수업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cma-edu.tistory.com/842
☎ 07491 906 433

시내에 위치한 식당 매매

리버풀 스트리트에서 현재 식당체인 운영중인 매장
사무실 밀집지역, 두 군데 대학교 유동 인구 많음
연 렌트 £48,000 권리금 £100,000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07300 408 922 Sam Chi

런던 우체국 London Parcel Office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KS3, GCSE, A-Level 수학 과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UMIST 전자 통신 공학 석사
선생님이 수학, 물리, 생물, 화학 과목들을
각 보드별에 맞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
영국 지도 경험 10년 이상. (줌 수업 가능)
☎ 07846 350 561

GCSE, KS3 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수업, GCSE, IGCSE 각 보드별 수업
(AQA Edexcel, OCR, Cambridge, WJEC).
Key stage 3, 13+ 준비, 식품품 학교 입학시험 준비.
따라가기 힘든 Y5-Y11 학교 진도와 숙제 봐드립니다.
런던대학 킹스컬리지 과학교육학 석·박사.
영국 지도경험 20년, 전직교사(여) ☎ 0794 162 5292

생활광고 안내

1회: £15
2회: £25
3회: £30
6회: £50
8회: £65
12회: £90
24회: £150
이메일로 광고내용, 게재 횟수,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koweekly@koweekly.co.uk

코리안 위클리 본지나 관련된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주의 정체를 어느 정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나 광고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지에 실린 광고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안 위클리는 광고주와 광고내용, 연락,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자 분들이 본지에 실린 광고주와 광고 내용 연락이나 제품, 서비스 구입 혹은 계약 이전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플루트 렛슨·음악이론 렛슨◆

Professional Teaching Specialist
전문가가 빠르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학생들 그레이드·음악장학생·음악이론 전문.
☎ 0783 468 7828 뉴몰든 파운틴

백프로 골프교실

골프관련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드립니다.
☎ 07770 392 060
baigpro@hotmail.com
Inner Drive Golf New Malden,
30 High St, New Malden KT3 4HE

Total Clean 토탈클린 세탁

세탁·수선 전문
세탁 : 의류, 이불, 커튼 등
명품 의류 수선 전문
115 Kingston Rd, New Malden
☎ 020 8949 7999 (일번지 정육점 바로 옆)

인벤토리 청소전문 - 서울클리닝

10년 노하우 인벤토리 청소 전문
처음부터 인벤토리 체크까지
책임지며 훼손된 부분 수리가능
☎ 07947 299 669 / 07432 703 156

UK Top Tour

프리미엄 투어 / 의전 / 공항픽업 / 캡서비스
전문통역 / 벤츠 V-Class / E-Class
☎ 07879 405 139 카톡 : kingstonplus
(직원 모집 : 워홀 환영)

스마일캡

공항픽업 서비스, 간단한 학생 이사
친절히 모십니다
☎ 07961 778 296

어디로 갈까 고민마세요, 정비의 으뜸

A3 MOTORZ MOT
£39.99
Free Retest
(Mon - Sunday)
튜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 타이어 교환·펑크 / 전기문제
기술자 **염관식**
· 20년 이상 경력 소유
· 한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 영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22 Wellington Crescent, New Malden KT3 3NE
☎ 07540 142 017



가치 있는 상품을 만나는 스토어 **웰빙 카페**

WELL-BEING CAFE

프리미엄 딸따냥 발패치

£15



Made in Korea

- 장시간 서서 일하는 분
-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분
- 평소 발이 차가운 분
- 부종이 있는 분
- 발에 자주 쥐나는 분
- 여행이나 장시간 걸은 날

한국산 천연 게르마늄 함유

무겁고 피곤한 다리와 발을 가볍게!

하루의 피곤을 패치 한 장으로 간편하게!

네오덤 3000 가우스 동전패치

원하는 부위에 빠르게 **통증 탈출!!!**

£15



Made in Korea

어깨 / 손목 / 무릎 / 허리

근육통이 느껴지는
어디든 부착하면
3000가우스
강력한 자력으로
빠른 통증 완화

플라즈마 바이러스 클리너

- ✓ 초소형
- ✓ 저소음
- ✓ 노필터

£85



Made in Korea

탁월한 살균 효과

플라즈마 입자 발생시켜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제거

빠른 탈취 효과

실내 공간 각종 냄새 신속 제거

휴대용 개인방역

지하철, 버스 등 외출시 감염 걱정 끝

경제적 친환경 살균효과

필터 없이 간편 사용, 잔류물 없는 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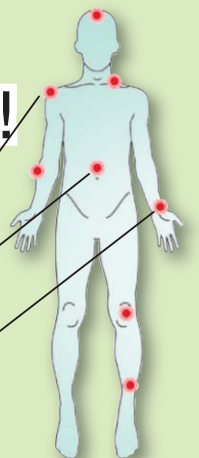
£10

근육통 완화!!



Made in Korea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손목 통증**



네오덤 영구자석은
리필 패치에 부착하여
재사용 가능합니다.

£250

전립선, 회음부, 단전운동을 한 번에
사랑받는 남성이 되기 위한 운동기



Made in Korea

정교해진 기술력으로
사용하는 부위에
진동을 발생하여
집중케어하는 원리

**전립선 건강!!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지구력 넘치는 사랑 받는 남성 되기
- 시원하고 힘찬 소변발, 쾌변 경험
- 피로 사라지고 의욕 넘치는 새로운 인생 즐길 수 있는 희망!!!

제품 설명 QR 참조



www.cdkorea.kr

구/입/문/의 코리안위클리 온라인 사업부

07842 758 697

kowekly@kowekly.co.uk

쿠팡·아마존·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기 판매

THE FIRST KOREAN-CHINESE
RESTAURANT IN CENTRAL LONDON

© YORI_BANJUM

짜장면 · 짬뽕 · 탕수육 전문점

요 리 반 점

4 Panton St, London, SW1Y 4DL
피카딜리 서커스 역 도보 3분